

목어

탈북자와 난민 지위

6·15공동선언 1주기를 맞아 남북의 민간인 650여 명이 금강산에서 통일을 향한 주춧돌을 다듬고 있을 때 보다 더 나은 삶을 찾아 탈북자 대열에 나선 이가 있다는 것은 슬프지만 오늘의 민족적 현실이다.



그 동안 그림을 통해 탈북자들의 실상을 자유세계에 알리는 장길수군 등 일곱명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베이징사무소에 국제법상 난민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요구는 매우 정당하고 합리적인 국제법과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현재 중국의 입장도 국제법과 중국의 법률 및 인권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한편 북한 당국과의 조율과정도 거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일체중생이 열반에 들지 않는다면 나도 역시 열반에 들지 않겠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은 북한은 동쪽 한 명이라도 불행 속에 놓아두고는 통일을 이루지 않겠다는 정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신으로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유치해 국가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중국정부에게 그에 걸맞는 외교적 처신을 요구함으로써 당당하고도 실리를 거두는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발휘해 지난 박종일씨의 탈북 때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중국도 올림픽 개최 등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처와 북한 당국의 배려를 통해 탈북주민에 대한 난민지위를 얻어내는 것이다.

국제법에도 국적·정치적 견해, 특정사회단체 참여 등을 이유로 안전한 피난처를 찾는 사람을 모두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일의 현명한 처리가 평화적 통일성취의 시금석이 되도록 해야 하며 비슷한 일이 수없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므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현 (충남청주 사무국장)

'해인사 대불' 설문결과 분석

해인사 대불 조성 문제와 관련한 본지 전화 설문 조사에서 드러난 핵심은 이제 '외형 불사' 시대를 마감하고 시대와 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복지 불사'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설문에 응한 50인 가운데 '바람직한 불사 방향'으로 '인재·복지 불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람이 30명이나 됐으며, 자비의 사회적 실천 또는 포교불사 등에 대한 견해까지 감안하면, 응답자의 80%인 40여 명이 외형적 불사에서 보살행 형태의 불사로 전환돼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들이 불교계 각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자급 사람들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형에 집착하는 물량주의적 불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때가 되었다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밖에 자연환경 및 수행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거나, 대중적인 수법, 문화·출판 등도 바람직한 불사의 유형으로 꼽혔다.

이같은 결과는 비록 이번 설문조사가 조사대상자 수와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불사 형태에 대한 문제의식이 위기위식으로 바뀌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대불 조성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38명, 76%)가 불교계 안팎의 일반적 반대 여론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난 것은 '한반도의 논리로 이 문제를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는 시각(6명)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긍정적·부정적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 뒤 결정할 문제라는

외형불사 '자제' ...인재·복지 '나서자'

것이다. 또 찬반논리에 따른 대립은 불교계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었다.

'대불 조성이 문제될 게 없다'는 응답 역시 6명(12%)이었는데, 이들은 대불 조성을 미래의 문화재를 만드는 불사 또는 불심을 심어주는 불사로 평가했다. 또 불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과 환경문제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근시안적 시각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38명은 그 이유로

원로 스님 고견 수용 중단차원 적극 중재 토론 통해 접점찾기

'법보사찰에 어울리지 않는다'(14명) '시기적으로 부적절'(10명) '외형적인 불사에 매달려서는 안된다'(8명)가 주류를 이뤘으며, 특히 '세계 최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해인사 불사를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바람직한 불사 방향과 일치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가장 많이 꼽힌 항목으로는 한문 경전의 국역사업이나 인터넷 경관, 장경각 특화 등 '법보종찰의 특성에 걸맞는 불사를 해야 한다'(13명)는 것이었고, 다음으로 교육불사(7명), 복지불사(6명) 순이었다.

설문조사 문항

1. 해인사에서 '세계 최대 청동 좌불'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2.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반대한다면 해인사의 불사를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 의견은?
3. 불교계를 위한 바람직한 불사의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4. 해인사 대불 조성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고, 해인사 선방 수좌들의 실상에서의 집단행동으로 이에 대한 비판도 커져 불교계 내분으로까지 비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해인사 수좌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안거 중에 집단행동을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래서인지 이 문제를 마무리하는 방식을 묻는 질문에서도 '수좌들의 참회'(14명) '해인사 측의 사과'(8명) 등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수좌들과 해인사의 우선 사과가 문제해결의 열쇠임을 지적했다.

그러나 실상사도 양해하는 등 서로가 이해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12명)는 견해도 만만치 않아, 이 문제가 외부에 불교계의 내분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이밖에 '큰 스님들이 나서야 한다'(5명) '종단에서 중재해야 한다'(4명) '토론을 통해 해결하라'(3명)는 의견도 있었다.

한영우 기자 myuhan@buddhapia.com

전화설문 대상자 (무순)

법장수덕사 주지	김재일 동산반야회 회장
청화실천불교전국승려회 회장	김동훈 정법원 운영위원장
법성(적자사) 주지	김윤하 금강산 불교연합회 운영위원장
법현(선운사) 주지	김영호
광운전국부구회 회장	오희환 불교정인연합회 회장
법하(봉도사) 성보박물관장	장
장각(부산불교연합회) 부회장	박창식 청도청 불교협의회 회장
홍선(적자사) 성보박물관장	김주보 한국은교불교연합회 회장
영산(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장
지현(송광사) 승려회장	장
경흥(서울시립) 목동청년승려원 회장	장
원행(경남승가대) 승무원회장	김규범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각현(연광사) 이사장	이명우 (마리미타) 청소년회 사무국장
지광(조계종 중앙총회) 위원	이희준 건국승려원장
성운(은혜노인복지재단) 회장	왕선자 불교여성개발원 부원장
법안(조계종 중앙총회) 위원	장
성광(수원불교사) 승려회장	장
성일(서울 강남포교원) 주지	김재승 민족사 대표
대운(태고종 총무원) 부원장	김형근 도서출판 통독나라 대표
지현(서울 불광사) 주지	장
퇴촌(서울 불광사) 주지	장
성호(공주사) 승려회장	이민동 대불문화재단 대표
능행(창주 정법사) 승려회장	박성국 국립법제연구원 연구실장
성인(부천 남부정법사) 승려회장	장
장정도(부산불교거사) 승려회장	이현덕 현직신촌 논설실장
장	최명준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이수덕(불교TV) 사장	장
문명대(동대) 교수	장
박영수(우리) 승우 공동대표	장

이제는 복지 불사

- ① 교구 분사 앞장선다
- ② 지역복지 성공사례
- ③ '1교구 1법인' 만들자

속초 신홍사

강원 불교복지 요람

85년 창립된 신홍사 장학회의 장학사업은 계기로 복지불사에 나선 신홍사는 94년 속초종합사회복지관과 95년 서울 구로종합사회복지관, 97년 서울 본동종합사회복지관(봉정암 위탁운영) 등을 위탁받아 모범적으로 운영하면서 96년 10월에 사회복지법인 신홍사복지원을 정식으로 인가받아 지속적인 복지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홍사복지원은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전주 스포피아, 반야노인요양원, 반야어린이집, 연꽃어린이집 등 모두 8개의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강원 복지의 요람으로 자리잡았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눈높이 포교'

양산 통도사

본사 복지사업 원조

양산 통도사는 91년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을 설립, 조계종 교구본사에서는 가장 먼저 지역 사회복지사업에 뛰어들어 선진한 것이 주목했다. 부산 공청종합사회복지관과 마산 중리종합사회복지관, 창원 경상남도화생기숙사, 부산 및 마산 연꽃어린이집, 서울 잠미어린이집, 통도사 어린이집 등 7개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교구본사 복지불사의 원조가 된 것도 오랜 복지불사의 노후유 덕분이다.

서울 삼천사

노인 복지 우수 사찰

94년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설립, 불교계는 물론 국내 노인복지 분야에서 선구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 삼천사는 97년 인덕노인복지회관을 설립, 저소득 계층의 치매 노인을 위한 협단지원을 갖추는 등 80여개의 프로



◇ 교계 내·외에서 노인복지사업의 모범이 되고 있는 삼천사 인덕노인복지회관 전경.

그램을 운영, 노인교육에서도 큰 성과를 이뤄냈다. 99년에는 서울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을 수탁해 임상심리치료센터,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은평장애인서비스센터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광주 향림사

불우아동 돕기 '심혈'

광주 향림사는 불우아동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복지불사의 터전을 닦았다. 그동안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불우아동들을 사찰에서 보호 양육하여 배출한 수가 500여명에 달한다. 광주 우선종합사회복지관, 향림유치원, 향림어린이집, 천운어린이집, 신용협동조합 등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 향림사는 광주불교대학교와 광주불교대학원을 함께 운영, 지역 사회복지지는 물론 불교교육의 중심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부천 석왕사

사회체육시설 운영

부천 석왕사는 덕유 원종종합사회복지관에 이어 99년부터 대규모 스포츠센터인 부천 스포피아의 위탁운영을 통해 사회체육시설 관리의 노하우를 축적, 6월 19일 경기 부천시로부터 부천송내체육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자체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집'과 생활협동조합, 장제식당, 롬바니특수아동교실 등을 운영해 지역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부산 내원정사

아동·청소년에 관심

86년 당시 최대규모의 내원정사 유치원 개원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사업에 뛰어들은 내원정사는 96년 합지골청년수련원 개원 및 물문대종합사회복지관 개관, 97년 내원어린이집 개원, 98년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 결성 등으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사회복지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내원정사 유치원에서 무려 5,000여명의 새싹불자를 배출했으며, 합지골청소

목조각에 혼이 깃든 작품만을 공급하는

성불 조각원

전통 불교 목공예 전문인 성불 조각원은 모든 작품들을 옛 전통 기법으로 재연해 만듭니다. 또한 목조각에 혼이 깃든 작품, 최고의 작품만을 최저의 가격으로 모든 불사현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불심으로 일구어진 불자기업입니다.

* 모든 불사현장에 쓰여진 모든 작품들은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문의 033)263-1102 H-P 017)379-0590

* 영업사원모집 *

사찰문



목불상



나한



사천왕

